

오키도마리항

오키도마리항은 이와미 은광에서 일본 국내외로 은을 출하하던 항구 중에서 두 번째로 개발된 항구입니다. 1562 년에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여 지배한 모리 씨족은 이와미 은광과 일본해를 연결하는 새로운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이 도로의 종착지였던 오키도마리는 상업 항구와 군사 기지라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1570 년 모리 씨족은 항구 입구에 쌓은 요새를 통해 오키도마리로부터의 해상 수송로와 은광 인근 유노쓰항 주변의 물자 공급 경로 모두를 확보하고, 항구 근처에는 도로를 따라 직사각형 모양으로 토지를 배치한 독특한 형태의 마을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17 세기 초반 이와미 은광이 에도에 거점을 둔 도쿠가와 막부의 지배 하에 놓이면서 은은 연안지방을 피해 우선적으로 육로를 이용해 오노미치로 운반되었고, 그곳에서 다시 오사카를 경유하여 에도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오키도마리는 쓸쓸한 어촌 마을로 변화했지만 그 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덕분에 오키도마리의 역사적인 분위기는 대부분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16 세기에 만들어진 이 마을의 구획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사람들이 해상의 안전을 기원하던 신사도 최근에 재건되었습니다. 오키도마리항 끝까지 걸어가면 한때 요새로 사용되었던 섬들이 저멀리 바라다 보입니다. 또한 은 수송선을 계류시키기 위해 부드러운 암석층을 깎아 만든 60 여 개의 설비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